

2023년 제2차 기후에너지분과회의 회의록

□ 회의개요

- 일 시 : 2023. 7. 4.(화) 14:00
- 장 소 :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컨퍼런스룸

□ 참석자 대상

- 참 석 : 총 15명의 위원 중 9명 참석
- 사무국 : 김연옥 사무국장, 서영옥(代 오보륜)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참석
1	강미정	창원시 현모회 회장	○
2	공병철	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	
3	박강우	창원특례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의원	
4	방예림	까사미아드메종 대표	○
5	유재철	한국폴리텍VII대학 에너지환경학과 조교수	○
6	유제대	한국에너지공단 경남지역본부 신재생에너지팀장	
7	유현석	창원YMCA 사무총장	○
8	이상욱	경남에너지(주) 신재생사업팀 팀장	
9	이용협	마산소방서발전협의회 위원장	○
10	이재덕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
11	장원준	경남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
12	정재희	진해누비다협동조합 사무국장	○
13	조광제	(주)광동개발 대표	
14	차성목	성원E&C(주) 대표이사	○
15	황준필	(사)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서마산지회장	

□ 회의결과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김연옥 사무국장이 총 15명의 위원 중 9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충족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다.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5항)

2. 참석위원 인사

- 참석위원들이 상호 인사를 나누다.

3. 전차회의록 보고

- 김연옥 사무국장이 준비된 안건지를 바탕으로 2023년 제1차 기후에너지분과 위원회 1차 회의 내용을 보고하고 위원들이 보고를 받다.

4. 2023년 사업계획(안) 논의

- 유현석 위원장이 기후에너지 분과 지난 회의에서 제안 된 9가지 내용에 대해 김연옥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기후에너지 분과에서 제안되었던 9가지 내용을 설명하고, 제안과 관련하여 9가지 내용 중 분과사업으로 한가지 선정하여도 좋고, 다른 제안을 하실경우 분과내에서 오늘 결정을 하여 올해 사업들을 제안해 주시기를 말하다. 지난 회의 제안된 주요 내용에 대해 참고자료 안건지를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설명하다.
- 유현석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1차 회의는 아이디어를 여러가지 제안하였고, 오늘은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제 우리가 분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사업화시키는 방안을 한 두가지 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 유현석 위원장이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하다.
- 유현석 위원장이 올해 추경이 확보되었음을 전달하다. 기존 분과 예산에 추가로 최대 300만원 정도 분과에서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하다. 그리고 추가 사업에 대해 올해 또는 올해는 못하지만 내년까지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까지 논의하고자 한다고 전달하다.
- 유현석 위원장이 지난 1차 회의에서 제안된 9가지 내용에 대해 발표를 해 주셨지만, 김연옥 사무국장이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권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9가지 제안된 내용 중에 준비된 사례들을 다시한 번 내용

을 자세히 설명하다.

- 유현석 위원장이 김연옥 사무국장의 설명을 다시한 번 안내하며, 사업을 결정하자고 말하며, 9가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제안하기를 요청하다.
- 유재철 위원이 제안 3번에 대해 자전거 출퇴근을 자전거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도보로 다니시는 분들과 조깅처럼 달리는 분들도 계시니, 범위를 확대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질문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유재철 위원 질문에 전국자전거 출퇴근 챌린지를 언급하며 답하다. 전국에 올해 11개 도시가 참가했었고, 출퇴근시간에 승용차를 대신하여 자전거나, 도보를 이용하는 홍보를 진행했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킹에서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도 즉,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자전거를 타거나, 도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마일리지를 주고 그것을 환산해서 쓸 수 있게끔 한다고 답하다.
- 유현석 위원장이 이번에 챌린지에 창원 참여인원을 묻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400명 정도 참여를 했다고 답하다.
- 유현석 위원장이 창원시지속가능협의회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해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를 하고 있으나 시민참여가 미미하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식을 조금 더 고민하면 좋겠다고 하다.
- 정재희 위원이 라이딩을 주제로 하기에 진해구는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자전거 타기가 위험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게 되는 것 같다고 말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이 내용을 자전거로 국한시키지 말고 생태교통이라는 컨셉트 안에 넣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고 말하다.
- 정재희 위원이 김연옥 사무국장이 제안한 내용도 괜찮다고 하시며, 군인들도 도보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다.
- 유현석 위원장이 자전거 마일리지에 대해 인센티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전거나 생태교통을 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제안할 수도 있다고 말하다. 위험성을 감소시키거나 없앨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 고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내용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한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만일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자전거 도로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하고 연구 전문가 또는 기관등의 설명을 듣고, 조사방법을 이해하고 위원들이 구별로 자전거길을 조사를 통해 필요성이나 개선사항을 기록하고, 이후 마일리지제도 필요성까지 가져가야 할 것 같다고 설명하다.
- 강미정 의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은 200만원이니, 그 중 한 두개를 정해놓고 나서 디테일하게 다음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다

- 유현석 위원장이 200~300 정도의 예산이라면 사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안하여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한다.
- 방예림 위원이 7번을 했으면 한다. 마창진 세 곳 모두 산이 많다. 산불 예방도 하고 숲을 보존하고 공기도 좋아진다. 7번을 홍보하면서 팻말도 하고 산을 보호하자는 걸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창원시 모두 할 수 있는 7번을 채택하면 좋겠다고 말한다.
- 강미정 위원이 7번 같은 경우는 등산객에 한정되어 있어 보인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터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시간과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 9월의 에코라이프 페어를 이용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유아·초등학교·시민을 상대로 교육 받는 분들에게 1번에 준한 어떤 증서나 만들어 주면 기후 에너지에 대해 인식하는 과정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한하다고 말한다.
- 유현석 위원장이 지금까지 제안을 3번 마일리지 제도로 나와있긴 하지만, 어쨌든 자전거가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7번 산불 예방 관련 제안이 나왔고, 1번 항목에 대해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는 세 가지 제안이 나왔다고 정리하다.
- 위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결정을 하고, 결정 후 보완하면 어떨까 싶은데 더 제안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다.
- 이용협 위원이 1번은 본인이 제안한 내용인데, 본인도 창원시지속협 위원을 하면서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졌게 되었고 우리 위원들이 이 정도인데 일반 지역 주민들은 아예 관심도 없고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들 대상 교육과 홍보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한다.
- 장원준 위원이 홍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곳이 좀 있어야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른다. 킥보드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 정재희 위원이 진해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과 걷는 사람 모두가 위험하다고 말한다. 자전거에 대한 의견은 안내한 들 이용할까 싶다고 말한다.
- 장원준 위원이 출퇴근으로 한정짓지 않고 자전거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도 같은 형태로 마일리지와 함께 제공할 수 있다면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제안하다.
- 유현석 위원장이 캠페인과 교육에 좀 비중을 두자, 자전거 출퇴근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서 생태교통을 활성화시키자의 2가지 의견이 유력하게 이야기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발언, 반대발언 모두 좋다고 안내하다.
- 이재덕 위원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도시들을 이야기 하며 그 도시들은 인프라가 잡혀있는 특징이 있다고 말한다. 차와 자전거 도로가 분리되어 있고, 역에 자전거 정거장이 있고 이용하는 분들이 차차 늘어가는 구조다. 우리

는 자전거 챌린지에 대해 논의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보다는 제안사항을 구나 창원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한다.

- 우리는 효과적으로 임팩트 있는 환경보호 운동은 켈 쉬운 것이 우리 집에 생활 쓰레기 제거 하는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된다. 공공기관도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된다. 그 방법들을 홍보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교육을 하는 기관이나 교육청 등에 우리가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거나 하는 식을 말한다.
- 실질적으로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좋은데, 교육을 많이 하고 있으나 효과가 저조하니 교육 쪽하고 연계를 하여 인식을 높이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한다.
- 이용협 위원이 이재덕 위원의 발언에 첨언 하고자 한다. 지금 이 시대에 못 먹고 굶주리는 나라도 있는데 반해, 직장내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나다. 생활 쓰레기도 마찬가지이다. 자전거에 대한 논의도 좋지만, 대상이 한정적이고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거의 없다. 그래서 본인은 기후가 이렇게 변화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의미로 하는 활동인지 교육이 진짜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 친구들 직장동료들 보면 전혀 관심 없는 분야이다. 그래서 그런 관심을 좀 높이는 참여나 교육이나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오전 생태분과회의의 내용을 잠시 설명하다. 학생에게는 교육에 대한 교육기회는 많으나 시민들에게는 기회가 적다. 짧은 영상을 제작하여 재미있는 교육을 시키고 실천할 수 있게 하고 퀴즈를 풀면 상품권을 주는 내용이라고 말한다. 교육분과에서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에 교육을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타분과에서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말한다. 올해 전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실험 형식으로 해보고 내년도에 확대하는 걸로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말한다.
- 강미정 위원이 우리는 기후위기 챌린지를 만들자. 본인들의 챌린지 실천하면 집 앞에 붙일 수 있는 마크를 만들어 주자. 그러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생각, 쓰레기는 어디로 가지 등의 생각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실천한 자긍심을 느낄 것이다. 초등학생 교육은 교육 후에 소각장 등을 순회 해야 충격을 받고 쓰레기를 줄여야겠다는 경각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한다.
- 이재덕 위원이 마크를 가정에 부착 가능여부를 묻다.
- 강미정 위원이 학교에서 한다면 학교 입구에 개인이라면 개인에게 기업이라면 기업에게 마크를 전달할 수 있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생물다양성과 비교하여 선별 기준이나, 교육 기준 등에 대해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 유현석 위원장이 강미정 위원의 의견 중에 챌린지에 관한 아이디어는 새로

운 내용이고 핵심적인 아이디어라서 챌린지를 하고 시상을 하자는 거지요하고 묻는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경상남도 바이바이 플라스틱이라는 주제로 챌린지를 한다는 정보를 공유하다.
- 유현석 위원장이 교육 비중을 높이면 타 분과에서와 중복이 되니, 우리는 챌린지가 나와서 그 방식도 나쁘지 않나 생각한다. 괜찮다면 이부분에 대해 더 발전적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하다.
- 차성목 위원이 우리는 예산이 적은데 사례를 주고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은 포괄적으로 교육이고 홍보이다. 홍보를 하는데 있어, 비용적으로 관내의 버스나 전광판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누구나 거리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본다면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함을 말하다.
- 장원준 위원이 홍보나 교육시 텀블러와 플라스틱(1회용품)을 비교하는 내용등 일반적인 내용들은 많이 알려져 있으나, 친환경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녹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 유현석 위원장이 마지막에 제안되었던 챌린지방식에 공감을 하시고 계시니, 교육이나 홍보를 어떻게 담을지를 고민하면 될 것 같고, 기후위기인식에 대해 영상을 담는 방법도 있으니, 이런 방식으로 해 보면 어떨까 제안하다.
- 이재덕 위원이 챌린지를 잘 논의해서 한다면 크게 같은 그릇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다.
- 이용협 위원이 교육도 될 것 같고, 홍보도 될 것 같고 해서 하면 되겠다고 말하다.
- 유현석 위원장이 차성목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 광고판도 활용하고, 허용범위 안에서 필요하다면 동기부여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시상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1안을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 유현석 위원장이 두 번째 추가예산 논의안건에 대해 김연옥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2023년도 추경편성이 되어 분과위원회 사업추진에 따라 추가 지원을 하고자 함을 설명하고, 제안을 요청하다. 제공드린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안내하다.
- 유현석 위원장이 추가예산에 대한 보완 설명을 추가하다.
추가예산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사업제안에 대해 꼭 서류가 힘들다면 아이디어라도 전달이 되면 되겠다고 말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유현석 위원장의 설명에 추가로 설명하다.
8월~9월 말경에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 2024년 사업계획안을 결정하여

창원시에 제출하며, 이를 위해 각 분과위원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정해져서 제출되어야 사업비가 사전에 적절히 편성할 수 있음에 사업에 관한 제안이 있다면 개개인이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토대로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2024년 사업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설명하다. 사업을 정하고 예상되는 사업비가 나와야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수 있게 되니, 회의 종료 후에도 사업 제안은 개개인별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하다. 사업은 새로운 사업이거나, 진행 중인 사업을 지속하거나 연계하여도 좋을 것 같다고 안내하다.

- 유현석 위원장이 첫번째 안건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하고 싶은 사업이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이 있다면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지않을까라고 말하다.
- 차성목 위원이 가축 분뇨나 음폐수 가스 등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시설이 창녕에서 진행되고 있다. 8월말에서 9월초 정도에 시설이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후에너지분과 위원회에서 견학을 한다면 현장 교육으로 추천하다.
- 유현석 위원장이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한 번 가보는 것도 좋겠다고 말하다.
- 유현석 위원장이 첫 번째 안건으로 돌아가 세부적인 계획서를 만들어 위원들께 공유하고 하기 전까지는 사무국장님과 황준필 간사께 위임을 요청하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요청하다.
- 유현석 위원장의 요청에 대해 모두 동의하다.
- 유현석 위원장이 안건에 대한 논의는 마침을 알리고 혹시 기타 안건 제안이나 광고가 있는지 묻는다. 안건이 없음을 확인하고 협의회 광고를 제안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추가 예산은 아직 협의되지 않았지만, 기존에 제안하신 내용을 정리하면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위임해 주신대로 논의를 거쳐 예산을 정리해도 될지 묻다.
- 모두 동의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2024년도 사업 제안서는 단톡방에 게시할 예정이니, 8월 22일까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 제안서를 만들어 제출하기를 요청하다.

5. 광고

- 진해길마켓 7월 8일 개최 안내
- 기후변화대응 시민교육 안내_지구가 주는 경고, 기후변화 이해를 주제로 3회 각각 7월 27일(올림픽기념관 공연장), 8월3일, 8월 10일에 개최 안내

6. 폐회

○ 유현석 분과위원장이 폐회 선언을 하다.

☐ 주요 논의 사항 요약

○ 분과위원장 : 유현석(창원YMCA 사무총장)

○ 회의결과 주요내용 :

1. 기후변화 이해 교육 및 실천 릴레이 챌린지 등 홍보·캠페인 추진 사업
 - 에코라이프페어 활용 교육
 - 소속 기관·단체의 실천 챌린지
 - 관내 광고판이나 버스 등 이용 홍보 캠페인
 - 기후위기에 따른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
2. 자전거출퇴근 마일리지제도 정책 마련
3. 2024년도 기후에너지분과 사업 제안서 요청 (*8월 22일까지 기한)
 - 붙임서류 참조

○ 차기 회의 일정

1. 일자 : 8월 29, 30일 중 택 1일 (단독방 투표게시 예정_사무국)
2. 시간 : 오후 2시
3. 장소 : 미정

☐ 회의사진



붙임- 2024년 분과위원회 사업 제안서 양식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_____분과위원회 사업제안서

제안일자 : 2023년 월 일

○ 제 안 자 :

○ 소속·직책 :

○ 제안명 (분과와 관련 분야 창원시 정책 및 협의회 사업 제안)

○ 제안 배경

○ 제안 내용 및 효과

○ 소요예산 신청액 : (총액 원)

- 지출 항목 및 내역 (※예시를 참고하시어 계획에 따른 지출 내역을 기록해 주세요)

예시) 강사비 : 150,000원×2명 =300,000원

체험교구 구입 : 10,000원×50개=500,000원

인쇄·홍보물제작 : 현수막 55,000원, 홍보물 2,000원×50개

사무비품 45,000원